

십 계 명

제일은 -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이는 -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삼은 -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사는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오는 -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육은 -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칠은 -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팔은 -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구는 -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지니라.

제십은 -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법전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일어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음이니라.

밝은 마음

십계명성회

머 리 글

우리는 이 세상을 늘 많은 번민과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행복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어디 있는지 찾을 길이 없어 참으로 답답해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답답해하며 고민하는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밝은 마음」은 우리에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하게 될 것이며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기본 원리와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여 우리를 진리의 바다로 인도하며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충만하게 해 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번민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길을 찾아 주시고자 만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병든 자 마음이 쓸쓸한 자 가난한 자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을 살아감에 곁은 부자이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 영적인 목마름으로 길을 찾아 헤메는 자 삶이 고단하나 답을 찾지 못해 갈급한 자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좋은 답을 얻게 될 것이니라.”

또한 「십계명 생활 속의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만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은혜를 내리시는지를 간증을 통해서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읽는 모든 분께서는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그 길을 찾아서 이 세상을 마음의 여유로움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전생과 이승에서의 악업을 다 닦은 후에 그 영혼을 수정같이 영롱하게 정화하여 미래세계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누리는 영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1일

십 계 명 성 회

목 차

| | |
|---------------------------|----|
| 1.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가 | 11 |
| 2.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 12 |
| 3. 우리는 사후에 어디로 가는가 | 13 |
| 4. 사후에 받는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 14 |
| 5. 인간의 영혼은 정말 윤회 하는가 | 15 |
| 6.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 16 |
| 7. 법전이란 무엇인가 | 18 |
| 8.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 하시는가 | 19 |
| 9.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20 |
| 10.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 하는가 | 22 |
| 11. 헌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가 | 24 |

| | |
|-------------------------|----|
| 12. 부부간의 사랑에 대하여 | 26 |
| 13. 자연에 의한 건강관리 및 병의 치료 | 28 |
| 14. 작은 성전을 온전히 간직해야 합니다 | 30 |
| 15. 유일신 사상과 우상숭배에 대하여 | 32 |
| 16.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음에 대하여 | 34 |
| 17. 안식일에 대하여 | 35 |
| 18. 부모 공경에 대하여 | 37 |
| 19. 살인에 대하여 | 39 |
| 20. 간음에 대하여 | 41 |
| 21. 도적질에 대하여 | 43 |
| 22. 거짓 증거에 대하여 | 45 |
| 23. 탐욕에 대하여 | 47 |

십계명 생활 속의 은혜

- | | |
|------------------------------|----|
| 1. 고통과 번뇌를 헤치고 평안을 찾아서 | 53 |
| 2. 내 삶을 늘 깨끗하고 선량하게 살려고 한다면 | 65 |
| 3. 우리 모두 치유의 은사를 받을 그날을 고대하며 | 71 |
| 4. 내 인생 전부를 바치며 | 79 |
| 5. 행복한 삶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 | 88 |
| 6. 내가 체험한 삶의 기적 | 91 |

1.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가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육신을 받고 태어납니다.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자의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육신과 영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전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전생의 업을 받아내지 못하고 그 업의 3분의 1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생의 업 때문에 잘 살고 못 사는 삶이 각각 다르니 그 시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다 할 것입니다. 내가 못 사는 것이 세상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닌 전생의 업에 의한 것이니 탓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법전]

많은 영이 지은 대가를 마치고 나면 저승에서 이승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제일 축복이라는 것을 알라. 그러지 못한 자는 짐승으로 태어날 것이며 세상에 살 때의 사악하고 흉측한 범죄자는 여러 가지 민물고기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라.(법전 제1권 25장 4절)

2.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모두 만복을 누리며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며 복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전생의 업과 이생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생에서 복이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다음 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선업을 쌓아야 만이 다음 세상에서 만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전]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살며 복을 받고 못 받는 것은 하늘에서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전생의 업과 이생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복을 누리며 잘사는 것 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라. 인간이 이생에서 삶을 누리고 난 후에 어떻게 되며 이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가를 한 번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아니 되느니라.(법전 머리 말씀)

3. 우리는 사후에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사후세계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천국은 다시 낙원 천국 에덴동산으로 구분되어지고 지옥은 지은 죄에 따라 무수히 많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은 49일 동안 구천이라는 이 세상을 떠돌면서 이승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49일 지나고 나면 이제 저 세상으로 영원히 가게 되는 것인데 우선 도착하는 곳이 외곽지역입니다. 이승을 떠난 영혼은 그곳에 대기하며 심판을 기다립니다. 심판에 따라 천국세계로 갈 사람은 천사의 인도에 따라 낙원의 관문으로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췌값에 따라 마귀의 인도에 의해 각자의 지옥으로 가게 되며 그곳에서 췌값을 치러야 합니다.

[법전]

인간 너희 영을 인도하는 자는 바로 나의 심부름천사이니라. 처음에 외곽지역으로 인도되어 낙원 천국 에덴동산에 갈 자들을 찾아낸다 하면 너희는 나의 말씀을 믿겠느냐.(법전 제1권 38장 7절)

4. 사후에 받는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자 영혼을 받아 태어나게 되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숨을 거두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천사가 관찰하고 생명기록책에 기록합니다. 이 생명기록책은 천상에 보관되는데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받을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하여 나쁜 짓을 하거나 숨긴다고 감추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계명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법전]

인간에게 특권을 주니 개개인들이 신앙의 자유라 하여 너희 마음대로 믿고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죽음 앞에서 용서해 달라고 소리 소리를 쳐본들 어느 천사가 너희 말을 듣는다 믿느냐. 이 땅에서 살아온 생명기록책으로 증명함을 그 책은 명백함이거늘 한 점도 더도 덜도 아니라 하면 너희는 나의 말씀을 믿겠느냐.(법전 제1권41장 5절)

5. 인간의 영혼은 정말 윤회 하는가

생명체의 영혼은 윤회를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전생의 업의 3분의 1을 가지고 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이승에 살아가면서 채우게 되는데 죽을 때 그 것을 가지고 가게 되며 사후 심판을 받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승과 저승이 있고 저승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죄가 없고 깨끗한 자는 낙원 천국에덴동산을 갈 수 있지만 지은 죄가 많은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가서 췌값을 치루고 각자의 업에 따라 여러 가지 형상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법전]

개개인들이 췌값을 치르고 난 후에라도 죄질에 따라 어디를 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인간특권으로 선함과 사악함을 그대로 결정함이니 어찌 불교인들만이 윤회에 대하여 말을 한다 하는가. 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예수 아버지의 존재함을 부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음이니라.(법전 제1권75장 2절)

6.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십계명은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써 바위에 새겨 모세에게 내리신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도리입니다. 178가지의 계율을 인간들이 지킬 수 없다하여 줄이고 줄여 만든 10개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에는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세상의 만백성들이 십계명을 깨우쳐 실천하는 날 이 지구촌에는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지상낙원이 될 것입니다.

일부 종교인은 십계명은 이미 폐기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결코 폐기된 것이 아니며 영원불멸의 진리입니다. 십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유일신이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언약입니다. 제5계명은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부모님에 대한 도리입니다. 제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기본도리입니다. 이 어찌 폐기될 수 있단 말입니까. 십계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인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고자 내리신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리입니다.

[법전]

구약시대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십계명을 모세에게 내리어 만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였고 나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신약의 말씀을 주었으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는 제3시대가 도래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십계명으로 온 지구를 덮고 만백성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를 열고자 함이니라.(법전 머리말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느니라. 그리하지 못할 때는 무서운 벌이 내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간 너희가 알아야 하느니라. 십계명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십계명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뜻과 문제와 해답이 모두 있느니라.(법전 제1권 8장 9절)

하늘의 법을 그대로 지구 땅에 내린 말씀이 바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아니던가. 인간 너희가 사는 땅에도 질서와 법이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은 법은 약하나 하늘의 천법은 일점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져 처벌 받는다는 이 사실을 인간 너희가 잘 알아야 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노라. (법전 제7권 162장 2절)

7. 법전이란 무엇인가

법전의 제목은 "은혜와 은총입니다"라고 부릅니다. 이 법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사람의 심부름꾼을 통하여 천상의 비밀을 인간에게 내리신 말씀을 책으로 엮어 펴낸 것입니다. 법전은 십계명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와 법칙의 말씀을 전해 주고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법전을 기준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법전]

앞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좌정한 이 성전에서 천년구원사업의 일환으로 나의 말씀이 법전으로 나갈 것이니 나의 법전을 정독하여 깨우치는 자는 여호와가 너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을 것이니라.(법전 머리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십계명 나의 법전 이외에는 아무 것도 보지 않을 것이며 나의 십계명 나의 법전을 기준으로 만백성을 구원할 것이니라.(법전 제7권 90장 4절)

8.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에덴동산 한가운데 존재하시며 2002년 8월 11일 대한민국에 있는 십계명성회 보좌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의 한 가운데 계시며 사랑이 있는 곳에 내가 있노라 하시었습니다.

[법전]

인간 너희에게 사랑이 없는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 하였느니라.(법전 제1권 1장 8절)

인간의 마음으로도 갈 수 없고 육신의 옷을 입고도 갈 수 없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곳 에덴동산이니라.
(법전 제1권 9장 6절)

전지전능한 나 여호와 하나님 본체가 성령으로 좌정할 곳이 마련되는 곳에서 2002년 8월 11일자로 새로이 문을 여는 것은 인간 너희 땅의 큰 대문을 열고 나의 일꾼들이 힘차게 밀고 나가는 행함이 될 것이니라.(법전 제2권 114장 6절)

9.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는 감사기도와 회개기도를 해야 합니다.

감사기도는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정성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업무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무사하게 하루를 보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회개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 죄업을 짓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영혼이 혼탁하게 되고 사후에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기도를 해야 합니다. 진실 된 마음으로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전생에서 지은 죄 이승에서 지은 죄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후에 구원받고 다시 오는 세상에서 좋은 업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법전]

항상 천사들이 너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라. 너희는 항상 기도하는 습관으로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 너희 자식에게 공부하라 공부하라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하여 매를 듣지 않는가. 너희가 기도하는 습관이 부족함이나 그중에서도 너희가 필요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느니라. 미리미리 기도하면 되지 어찌 급할 때만 기도를 한다 하며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법전 제1권 1장 4절)

기도는 진정한 기도여야 하며 정직한 기도가 아닌 거짓 기도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느니라.(법전 제1권 1장 5절)

인간 너희가 부탁 소원이 있다 할 때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으나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믿느냐. 진정한 기도라고 믿느냐. 너희가 진정한 기도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다 듣느니라.(법전 제1권 1장 7절)

10.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 하는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2002년 8월 11일 천문을 여시고 대한민국 땅에 좌정하시어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며 천년구원사업과 천년계획사업을 통해 혼탁하고 병든 이 세상을 정화하고 구원하신다 하시었습니다.

천년구원사업은 이 세상에서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악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선한 자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과 법전말씀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업이며, 천년계획사업은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공기와 물과 땅을 오염시켜서 소중한 생명을 병들게 함을 심히 안타까워하시어 향후 천년동안 이 지구를 직접 다스리시고 정화하시어 평화의 땅인 지상낙원을 건설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전]

여호와 하나님의 천년구원사업도 만백성을 구원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에덴동산에 너희가 오도록 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음이니라.(법전 머리말씀)

인간 너희를 모두 다 구원하여 다 불러들일 여호와 하나님
의 계획인 천년구원사업과 천년계획사업을 똑같이 하여
인간은 자연을 벗어나지 못함을 알게 함이니라.(법전 제1
권 9장 6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직접 다스려 천년구원사업을
하고자 세상을 직접 정화할 것이니라. 여호와가 직접 정화
를 시작할 때 인간 너희가 이러니저러니 말들을 하지 말
라. 이 세상의 곳곳을 정화할 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
이니 그 중의 깨끗한 자는 중심을 잡고 기다려라. 때가 되
면 나의 법전을 찾게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때를 기다
려라. 두려워하지 말라.(법전 제1권 28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준 십계명으로 새로운 천
년구원사업과 천년계획사업을 시작하는 제3 시대의 시작임
을 인간 너희도 잘 알아야 하노라. 여호와가 직접 이 세상
의 곳곳을 정화하고자 함을 알라.(법전 제1권 74장 3절)

11. 헌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가

십일조는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던 규례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인 레위지파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에 제사를 올리는 그들의 생활을 위해 다른 11개 지파가 수입의 10분의 1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대에서는 십일조는 이미 거출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종교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헌금을 걷는 것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만약 십일조를 강요한다면 그곳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스러운 곳이 아닐 것입니다.

헌금과 십일조를 많이 내고서 그것을 공개하고 목에 힘을 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은 남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공개하는 것은 이미 바람처럼 흩날려 좋은 공덕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종교지도자들이 헌금이나 십일조를 강요하는 것은 위선이며 크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법전]

십일조에 대해 설교 하면서 돈 돈 돈 하지 말라. 그 재물을 너희가 마음대로 하면서 어찌 하늘의 창고에 도둑맞지 못하게 한다 하며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법전 제1권 23장 2절)

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재물을 모으고 헌금을 걷고 너희 욕심에 큰 건물을 짓고 하는 땅에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죄의 대가로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니라.(법전 제3권 17장 4절)

헌금을 많이 내야만이 천당을 간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인간은 돈을 한 닢도 가지고 오지 못함을 알라. 인간특권이 있을 때 남에게 도움을 주고 베풀어라. 어느 곳이든지 정한 자리의 관리비에 보태서 써야지 그 많은 돈으로 그곳을 살펴본 후에 돈으로 거래하고 재물에 정을 두고 재물을 가져다 바친 그자에게 친절하게 하는 그 많은 죄를 어찌 너희가 감당하겠느냐.(법전 제4권 28장 7절)

12. 부부간의 사랑에 대하여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웃이 누구입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두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부부입니다. 따라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가장 기본은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고 위선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주변의 이웃, 직장, 사회 이렇게 점점 사랑의 실천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없으면 이 사회에 사랑이 넘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사랑 가족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기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법전]

사랑이 있는 곳에 여호와와 있고 사랑이 없는 곳에 여호와가 없느니라. 분명한 것은 너희 사랑이 없는 곳에는

여호와가 없다는 것을 알라.(법전 제1권 12장 3절)

부부는 한 가정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식들과 오순도순 재미있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가정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러한 가정은 은혜와 은총을 내려줄 때 웃음꽃이 필 것이니 그렇게 알라.(법전 제6권 103장 2절)

오늘날 이 나라 저 나라마다 부부의 이름 아래 가족들이 하나둘 여러 자녀를 거느리고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며 그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모범이 되는 가정을 이루도록 하여라.(법전 제8권 65장 1절)

너희가 천국 가려면 이 땅에서 가족관계가 제일 소중한 것을 알고나 있는가. 너희 가족관계를 제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또한 부부 관계를 원만하게 하지 못하면서 어찌 전도한다 큰소리치고 이곳저곳을 찾아가 전도에만 신경을 쓰고 사는가. 너희 자식이 배고파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서 어찌 남을 전도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일을 한다 야단법석을 하는가.(법전 제9권 146장 6절)

13. 자연에 의한 건강관리 및 병의 치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건강을 소홀히 하게 되면 몸에 병이 들고 병이 들면 심한 고통을 받게 되고 마음도 약해지며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다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누구에겐가 의지하고 싶고 병이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생명을 연장시키려 헛된 욕심을 갖게 되면 가산을 탕진하고 병은 병대로 깊어져서 더욱 더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병이 들어도 주어진 생명의 끈을 이어갈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건강회복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건강회복의 은사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절한 소망과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심부름꾼을 통하여 자연에 의한 치료를 통해 건강회복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전]

이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 시간에도 생사를 다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라. 여호와가 나의 심부름꾼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었으므로 앞으로 그 능력을 쓸 것이며 그때까지는 대비하고 있는 중이니라.(법전 제1권 9장 4절)

진실하고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면서 살라 하였나니 사랑하는 나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러 먼 나라에 갈 때 그곳에서 산 천사처럼 행동을 할 때는 나의 심부름천사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여 병자들을 낫게 해줄 것이니 세상 사람의 믿음보다 우수한 실력의 성령이 임하여 곳곳의 병자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병들을 낫게 하는 기적을 여호와 하나님이 줄 것이니 어느 누구든지 나의 법전을 보고 깨달았을 때 그 믿음을 보고 난 후에 진실로 깨끗하게 믿는 자들은 치유해줄 것이나 나의 일꾼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니라. 그때가 머지 아니하여 올 것이니라. (법전 제6권 149장 2절)

14. 작은 성전을 온전히 간직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과 가장 닮게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 자체가 바로 작은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전을 잘 관리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그대로 온전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육신을 훼손하거나 장기를 기증하거나 문신 등으로 낙서를 하거나 함부로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승에서 육신을 훼손하면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육신은 씌어지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성전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이 죄가 큰 것은 우리의 육신 자체가 작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깨끗이 하고 맑은 영을 담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안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음을 금하신 제7계명을 어겨서는 안 되며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전]

땅에 너희 이름 석 자 조용히 내려놓고 그 내려놓음이 깨끗해야 하며 이 땅에 육신을 편안하게 안장하고 그 자연과 함께 너희 육의 옷을 소중하게 그 자리에 머무는 한 평의 자리는 아름다워야 하노라. 그 자리는 인공적으로 만들지 말고 풀과 잔디 속에 자연스레 잔디와 꽃과 함께 아름답게 너희 소중한 하나뿐인 육의 옷을 잘 정리정돈 해놓고 오라 하는 나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천상의 길로 오도록 하라 하였다 하지 않느냐.(법전 제8권 17장 4절)

이 땅에서 너희가 육신의 옷을 아무 데나 주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간을 주고 왔다면 지옥 가서는 간이 없이, 발을 주고 왔다면 그곳에서도 발이 없이 절뚝절뚝할 것을 알라. 눈알을 주고 왔다면 그곳에서도 눈알이 없는 봉사가 되어 캄캄함을 알라. 쓸개를 주고 왔다 할 때 쓸개 없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됨을 알라. 너희 육신을 소중하게 하여야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빌린 육신을 인간 너희가 마음대로 하는 그 죄가 크니라.(법전 제8권 24장 4절)

15. 유일신 사상과 우상숭배에 대하여

십계명 중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또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이 두 계명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신도 영접해서는 안 된다는 유일신 사상과 우상숭배 금지 사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인간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고 호흡을 넣어 인간을 만드시고 천사와 같은 착한 마음을 불어넣은 성전이라 하시며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라 하시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많은 권한을 주시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가장 닮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를 창조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며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구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 다만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존재하시므로 그것을 부정하면 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십계명 중에 가장 기본과 근본이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법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무 조각, 돌 조각, 쇠붙이로 만든 형상을 보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하게 십계명에 넣어놓은 것을 인간 너희가 만들어 놓은 곳에 일생을 바치고 온다면 그 죄값을 어찌 치르겠느냐. 이 땅에서 무심코 섬기고 절하고 매일매일 그곳에 매여 섬기는 자들은 그 죄를 개개인들은 잘 알고 있는가.(법전 제6권 120장 1절)

16.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음에 대하여

십계명 중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과 하나님 자체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가치 없고 쓸데없는 목적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 맹세뿐 아니라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허위와 거짓 말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든지, 저주, 마법과 마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기도 감사와 예배에만 또 거룩한 믿는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때나 일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용할 때에 그것이 신성모독이 되고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법전]

누구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였거늘 어찌 인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살아가느냐.(법전 제3권 25장 4절)

17. 안식일에 대하여

십계명 중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이 계명은 우주의 섭리에 따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가장 닮게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옛세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도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 세계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요일에 모든 사람이 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전소를 세우고 교통수단을 모두 세운다면 아마도 우리는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격일로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옛날 농경사회와 같이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나친 욕심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부리는 자와 일하는 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부리는 자가 욕심을 부려 고용된 사람을 쉬지 못하게 부린다면 그 사람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소

나 말도 쉬지 않고 일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여호와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법전]

이 지구가 돌고 도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뜻에서 질서에서 돌아가는 것을 너희는 잘 알아야 되느니라. 너희는 선하게 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야 하며 일상생활은 십계명 속에 살아야 되며 여호와 하나님 존재를 믿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할 때 너희 가정에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겠노라.(법전 제6권 77장 3절)

18. 부모 공경에 대하여

십계명 중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람은 어버이에게서 육신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인 나를 연결시켜주신 소중한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당연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중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인간의 도리 중 제5계명으로 정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축복을 약속한 계명이 부모공경 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다 잘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장수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모공경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을 잘해

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야 될 것입니다. 일부 종교에서는 이 부모공경과 우상숭배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명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법전]

너희 조상에게 절하는 것도 잡신을 모신다하며 종교가 달라 서로 의견차이로 그 가족들을 원수처럼 하는가. 그날을 위하여 조상을 기념하는 날에 절하는 것은 용서할 것이니라.(법전 제4권 79장 2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조상 앞에 1년에 한 번 절을 한다고 해서 사탄을 모신다고 하지 말라. 전생에서 일로 이승의 인연으로 만난 은혜로 너희 도리를 다하고 예를 갖추고자 절하는 것에 대하여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불효가 어디에 있느냐.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을 명절에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니라 말씀을 하노라.(법전 제5권 11장 3절)

19. 살인에 대하여

십계명 중 제6계명은 ‘살인하지말지니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고 또한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며 우리의 육신을 작은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십 년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과거에 지은 죄를 사함 받고 난 뒤 그 부모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기 위해 유산을 하는 것도 한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인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 모두를 말합니다. 자살 타살 유산 등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생명을 거두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으며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목숨을 죽인다는 것은 크나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법전]

유산도 살인죄라는 것을 안다면 너희는 유산을 하지 않을 것이며 유산도 하늘에서는 살인죄로 판명하는 것을 인간 너희도 잘 알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인간 너희는 명심 명심 명심하여야 하노라.(법전 제1권 32장 6절)

개개인의 수명을 60살로 주었다 하면 어찌 살기 좋은 세상을 미리 포기하고 귀중한 생명을 버리는 자는 60살까지 살지 못하고 40살로 너희 마음대로 운명을 마치느냐. 외곽지역에서 천사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행동이며 남은 20년은 구천으로 돌아가서 그 운명이 채워질 때까지는 잡신이 되는 불쌍한 영이며 그런 자가 다시 올 때는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알라.(법전 제3권 96장 3절)

이 땅에서 잘살고 못살고 하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너희가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죽은 자들은 저승도 못 가고 하늘 밑 땅 위의 구천에서 떠돈다는 것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 너희에게 알려주노라.(법전 제5권 110장 1절)

20. 간음에 대하여

십계명 중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무질서하여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남녀 구분 없이 애인을 만들어 인생을 즐긴다하며 간음을 밥 먹듯이 일삼고 있고 텔레비전 연속극 인터넷 할 것 없이 간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음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시 하고 있으며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정은 파탄 나서 그 자녀들이 고통 속에 자라서 보고 배운 대로 또 그러한 악행을 반복함에 따라 세상은 점점 더 사악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난잡하고 비위생적인 성적행위에 의해 에이즈와 같은 난치병이 세상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법전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며 간음죄가 용서할 수 없는 제일 큰 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전]

너희가 특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죄 중에서 간음죄가 제일 크니라. 개개인의 생명기록책의 큰 죄는 간음죄가 크다 하였느니라.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의 아내를 가지고 싶어 하며 또 여인이 남의 남자를 가지고 싶어 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간음죄가 제일 무섭다는 것을 너희는 명심하고 명심하여야 하느니라.(법전 제1권 3장 9절)

십계명 중에서 간음죄는 용서할 수가 없노라. 작은 성전을 더럽힌 죄는 용서할 수가 없으며 죄 중에서 제일 무거운 죄이며 한 남자가 이 여자와 저 여자를 한 여자가 이 남자와 저 남자를 더럽힌 죄는 큰 죄로 무서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간 너희는 잊지 말라. 돈으로 너희 몸을 팔고 너희 몸을 재미로 삼고 사는 자와 또 남의 몸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는 자는 어마어마한 벌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라. 너희 몸을 물로 씻고 닦고 제 아무리 닦고 씻고 하여본들 그 죄는 저주를 받게 됨을 알라.(법전 제1권 102장 4절)

21. 도적질에 대하여

십계명 중 제8계명은 ‘도적직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께서는 남의 것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가져오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옛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오래전부터 도적질에 대해 경계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적질은 왜 하는 것일까요. 도적질은 인간의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 하듯이 무엇이든지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곧 죄악의 근본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심 아름다운 것을 취하려는 욕심 남 앞에 우월감을 나타내려는 욕심 이러한 것들이 모두 죄악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남의 나라를 빼앗으려는 욕심 미인을 쟁취하려는 욕심 종교적인 우월성을 증거 하려는 욕심 등으로 인해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욕심은 결국 우리가 파국의 길을 걷게 되고 죽어서도 지은 죄의 대가대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전]

너희는 한 번 배를 채우기 위해 굶고는 살 수가 없어서 도적질을 하여 너희 그 배가 부르다한들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또 배가 고프면 또 채워야 할 때 또 도적질을 하겠느냐. 한 순간 한 순간 배를 채워야 할 때라고 하면 다른 것을 찾아 일을 찾도록 하여라. 어찌 힘든 일은 하기를 싫어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배를 채우려고 하느냐.(법전 제1권 87장 1절)

남의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오지 말라. 그 죄가 크다고 해도 어찌 너희는 믿지 않는가. 십계명을 읽고 보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지고 오는 죄가 크다는 것을 알고 그 죄들이 쌓이고 쌓일 때 무서운 고통을 받게 됨을 어찌 모르고 사는가.(법전 제3권 23장 3절)

부모가 나란히 도적질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자기 자식에게는 너희는 씩씩하게 착하게 자라야 한다하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양심의 가책도 없이 겉으로 부모의 모습을 하는 자 어찌 진실하고 정직한 부모라는 말인가. 부모가 가는 길은 무엇이더냐.(법전 제4권 46절 5절)

22. 거짓 증거에 대하여

십계명 중 제9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지니라.’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을 쓰면 쓸수록 무디어 지지만 사람의 혀는 쓰면 쓸수록 날카로워 진다고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남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됩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거나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말을 전할 때 더하거나 빼는 것 자기 생각에 맞춰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는 것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범하기 쉽습니다. 또한 거짓말로 인해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고 인간관계에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서 매장당하게 되고 삶이 곤궁하고 외롭게 되며 세상이 혼탁하게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전]

달콤한 위선과 거짓은 깨끗한 자의 마음에는 설 자리가 없어 사악한 심성을 가진 자가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면 너희는 나의 말씀을 믿겠느냐. 사랑하는 만백성은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힘써야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명심하고 명심하여야 하노라.(법전 제2권 6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을 진실로진실로 믿고 실천하며 정직하게 살라. 이 땅에서 거짓을 수단과 방법으로 하여 잘살고 거짓으로 장사하여 생활하고 너희 자식에게 거짓말로 모은 재물을 준다면 사랑하는 자식이 몰랐을 때는 부모를 존경하지만 사악한 모습이 발견될 때 그 부모를 어찌 생각하겠는가. 늘 말씀에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지 않던가. 거짓말로 모은 재물은 오래간다 생각하지 말라. (법전 제2권 106장 3절)

인간 너희는 매일매일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고 거짓말 없는 하루를 살라. (법전 제3권 65장 2절)

23. 탐욕에 대하여

십계명 중 마지막 계명인 10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 탐욕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정치인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려 국민을 위한다고 끝없이 거짓말을 하고 종교지도자들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 하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끝없이 채우려 합니다. 일반 대중이 종교를 갖는 것도 자기수양을 하기 보다는 기복신앙으로 믿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훌륭한 아이를 점지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세요. 부자 되게 해 주세요. 출세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기도가 자기 복을 염원하는 기도뿐입니다. 이게 다 욕심이며 탐욕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 자가 자기의 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한 이승을 떠날 때도 자기의 업을 가지고 떠나며 쌀 한 톨 못가지고 갑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사는 것은 다 각자가 노력할 탓이지 하나님이나 예수나 부처 또는 다른 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다 타고난 복그릇의 크기가 있는데 욕심으로 그 그릇을 가득 채우면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 주려고 해도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업을 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는 비워 놓아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에 좋은 업을 또 복을 채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사찰에 시주를 많이 한다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봐 가면서 그에 맞게 서서히 주십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그에 걸맞게 마음의 고통과 재앙도 함께 주시고 탐욕을 버리고 선행을 많이 하면 그에 맞게 또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안 주시지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노력도 착하게 열심히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열심히 하면 당장은 뭔가 손에 잡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나쁜 업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좋은 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많은 악업을 가지고 떠나면 다음 세상에 절대 좋은 모습을 가지고 태어날 수 없습니다.

[법전]

인간 너희는 욕심을 내지 말라. 욕심이 죄악의 근본이며 그 근본을 이겨내지 못하면 다 쓰러지느니라. 욕심이 욕심을 낳고 욕심이 죄를 만드느니라. 개개인들이 많은 재물을 쌓아 놓는다 한들 그 재물을 다 쓰고 온다 생각하느냐. 인간특권이 있을 때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라 하였거늘 어찌 100년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는가. 아무 욕심 없이 산다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고 자연처럼 편안하게 살면 될 것을 욕심 때문에 망하고 개개인의 명예도 욕심 때문에 훼손된다 하면 너희는 나의 말씀을 믿겠는가.(법전 제1권 70장 1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뜻은 전생에서의 개개인의 업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이웃의 집을 탐을 내는가. 저

회는 공덕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개개인의 업이니 현재 인간특권 있는 자가 이승에서 깨끗하게 살도록 하여야 하느니라.(법전 제3권 52장 1절)

오늘날의 많은 종교가 고무풍선에 바람을 넣고 넣다가 보면 커져서 견디지를 못하여 터지고 마는 모습이며 인간 너희가 이 시점에까지 와 있으니 놀라지 말라. 종교 지도자 너희가 바라는 명예와 부귀와 욕심 때문에 견잡을 수 없는 사악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법전 제1권 74장 3절)

이 땅에 살면서 잘살고 못사는 것을 원망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땅에 십계명을 내려준 것을 가지고 살면 되지 개개인이 욕심 때문에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 개개인의 복은 자기가 뿌린 대로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법전 제2권 133장 5절)

이 지구 땅에서 십계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 부모의 욕심으로 자식을 키우니 어찌 인간들이 순하고 온순한 자

식들이 되겠느냐.(법전 제6권 94장 3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전생의 업과 자기 공덕으로 잘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너희는 알라 하였느니라. 돌고 도는 전생의 업이 하나도 없는 자는 다시 세상에 태어난들 어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생각을 하지 말라.(법전 제9권 114장 3절)

부 록

십계명 생활 속의 은혜

고통과 번뇌를 헤치고 평안을 찾아서

제 나이가 48세 때인 2004년 말경에 친구가 저에게 치킨집을 동업하자고 제의를 해서 그 친구를 따라갔다가 인터넷업자를 만나서 점심을 함께한 후에 헤어지면서 그 사람이 하얀 책 한 권을 저에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해서 별생각 없이 집에 와서 그 책의 머리글만 읽고도 예사로운 책이 아님을 알게 되어서 이틀 정도 만에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말씀임이 틀림없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법전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여보세요, 제가 법전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전화했습니다. 그곳의 다음 모임이 언제입니까? 찾아가보고 싶습니다. 그곳 위치가 어딥니까?”라고 물어보고서야 지금 보문동의 성전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첫날 성전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전면의 벽 전체에 딱 차게 걸려 있는 십계명과 그 앞에 있는 흰 탁자가 보였고 전

체적으로 회고 아담하며 정갈한 성전 내부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난생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앞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친견(개인기도)하는 영광도 얻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고 찾아온 저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내리셨고 예배가 끝난 후에 저는 ‘이곳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 내 뼈를 묻을 곳이 여기로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친히 뵈게 되고 말씀을 직접 듣게 되리라고는 상상해 보지도 못하였으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친히 좌정하시어서 말씀을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에 조금도 의심이 들지 않았고 6천 년 전 시나이 산에 강림하시어 십계를 모세에게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 다시 오시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과연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라.”하는 말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곳에 좌정하시었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도자 선생님도 “건축가가

버린 돌을 머릿돌로 쓰신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와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작고 아담한 성전도‘이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구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는 대죄를 지었음을 깨닫고는 벽에 걸려 있는 예수 십자가 상과 마리아 상을 깨뜨려서 땅에 묻었고 또 예수와 마리아 그림은 불로 태우고 그 액자에는 십계명을 넣어서 벽에 걸어 두었으며 또한 집에 있던 묵주, 천주교 관련 서적, 찬송가 책은 모조리 썰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성서는 그냥 참고용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후 개인기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너는 총명하고 총명하도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듣고는 우주의 제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 방식대로의 예법으로 4배의 절을 올렸다. 그 이유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 배를 올려도 부족한 것을 알고는 있으나, 제가 알기로 황제에게는 4배의 절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자 한 것이며

그 당시의 개인기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네 이름 석

자를 기억하마!”라고 하셨을 당시에는 제 생각으로‘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의 이름을 아셨다는 말씀인가?’하고 의아해했으나 얼마를 지나서야 그 말씀이 내가 그 순간 죽었다면 바로 천국에 들 수 있다는 의미일 정도로 은혜로운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한 달 내로 너에게 꿈으로 보여줄 것이 있다.”말씀을 하셨고 약 15일 후에 저에게 천사 두 명이 통으로 짠 흰 모시 두루마기를 입혀주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잡 꿈이 아닌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꿈 꿈이며 또 그날 제가 자기 전에“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그 꿈을 오늘 꾸었으면 좋겠는데요!”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꿈 꾸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성전을 찾아왔을 당시에 저는 허리가 아파서 한 달 정도 한방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아마도 요가를 하다가 무리하였던 것 같아서 한약 한 재를 먹고 침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차도가 없어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면 허리에 무거운 통증이 식은땀이 날 정도였어도 그때까지는 그래도 견딜만하였으나 좀 더 악화하면 도저히 견

덜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태에 있었을 때의 개인기도 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무엇을 넣어서 족욕을 42일간 하라.”말
씀하셨을 때에 제가 허리에 대해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처
방을 내려 주셔서 제가 속으로 한편 놀라면서도 얼마나 감
사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정성껏 하였더니
40일째에 허리 통증이 사라졌으며 허리가 낫자 이번에는
“무엇을 15일간 먹어라.”하시어서 그렇게 하였으며 그리고
“뭇국을 먹어라. 마늘 잼을 만들어 먹어라. 오미자를 달여
먹어라. 시래깃국을 며칠 먹어라. 구기자를 달여 먹어라.
무엇을 먹어라.”등 여러 가지를 실천하고는 저는 원래 소
화력이 약한 사람으로 몸무게가 겨우 51kg으로 야위어 있
었는데 지금은 소화력도 좋아지고 보기 좋을 정도로 살
도 올라서 정상적인 원래의 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제 아내는 늘 피로를 느껴서 잠도 많았고 한 달에 한
번꼴로 몸살을 앓을 정도로 허약한 사람이므로 저는 아내
의 허약한 몸을 보면서 늘‘아내가 50이 넘으면 휠체어에
태워서 밀어줘야 하는 불쌍한 내 신세가 되겠구나! 아니
그보다 더한 암이나 치매 같은 병에 걸려서 집안이 풍비박

산 날지도 모르겠구나!’라고 생각하던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인기도 시에 제 아내에게“썩 좌욕을 하라. 무엇을 달여서 먹어라. 솔잎 요를 깔고 자라.”등의 처방을 내려주셔서 지금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몸살을 앓을 정도로 건강해졌으며 아내의 가슴 여러 곳에 멍울이 잡힌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수술로 제거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였더니 멍울이 사라졌으며

막내는 사춘기에 들어서자 얼굴에 여드름이 심해서 학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할 정도였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여서 그 물로 세수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했더니 얼굴이 놀랄 정도로 좋아진 일 등, 그간 개인기도 시에 저와 제 아내 제 아이들을 위해서 내려주신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한 처방은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이고 가정의 생계와 화목,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보살피주신 것도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가 성전에 나간 지 2년쯤 되었을 때에 제 살림 형편이 요가선생님으로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막내가 중학생이고 둘째는 고등학생, 큰딸은 대학생이었고 그때

큰딸이 입학할 때 은행대출로 입학금을 치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저는 아비로서 아내가 애쓰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개인기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생계가 어려워서 제가 취직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현대자동차에 교섭하려고 합니다.”하고 고하였더니“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씀을 내리셨고 두 달 만에 다른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는데 제가 49세의 늦은 나이에 다시 취업이 된 것입니다.

보수도 애초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았고 지금은 회사에서 아이들 대학학자금도 모두 지원받는 혜택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을 받아오고 있으며 첫째 딸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에 현재는 영국에 유학 중이며 그 딸이 대학 재학 시에 유학을 보내 달라고 하였을 때에 제가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었더니 내리신 말씀이“네 딸이 그곳에 가게 되면 악연을 만나게 되니 유학을 보내지 말라.”하시었으므로 당시에 유학을 가지 않았는데 그 애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 다시 유학을 보내 달라고 해서 제가

딸에게 그러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어보고 허락하겠다고 대답을 하였으나 제가 이 문제를 여쭙기도 전에 기도자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기도실로 들어가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내일 당장에라도 딸을 유학을 보내주라.”말씀을 하시어서 지금은 그 애가 유학 중에 있으며 그곳에서도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영국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십계명성회에 와서 공부를 시작할 당시에는 제가 막 요가지도자 자격증을 따서 수유리에서 요가를 가르치던 중이어서 가장으로서 벌이는 형편이 없었으나 시간적 여유는 많았으므로 매일 요가수업이 끝나면 성전에 들러서 밥을 먹고 법전을 읽었으며, 당시에는 1, 2, 3, 4권이 출판되어 있었고 5, 6권은 가본으로 있는 중이었는데

저는 그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이 궁금해서 2~3일에 한 권 정도로 열성으로 읽고 공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생수를 올리기를 2년간을 계속할 때에 벌이가 적어서 집안 살림은 곤궁하였으나 시간은 여유가 있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 뵈 수가 있으니 이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2년간 매일 성전에 들러서 여호와

하나님께 생수를 올리며 정성을 들인 이유는 물론 시간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상에 좌정하여 계신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보니 나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에서 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불효자식을 둔 아버지가 효성을 보이는 자식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위안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저의 그 마음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네가 나를 섬기는 그 정성이 가륙하므로 내가 너를 기억하겠노라.”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뵈는 지만 7년이 되어가며 제 나이는 지금 55세로 그간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앞에서 말한 것 외에도 사적인 내용이라 밝히기 어려운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것들이 많으며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가피와 은혜와 은총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전에 저는 늘 불안, 초조,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오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사는 것인지?’알 수가 없었으니 허무하였고 또 느닷없이 덮칠지도 모르는 질병과 사고, 저 자신의 무력감에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자리가 편하지 않았고 겉은 웃고는 있어도 내면의 허무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불안감과 초조함 그리고 허무감이 사라져서 미래가 분명해졌으니 불안과 초조는 사라지고 인생을 깨닫고 보니 허무감이 어느새 사라지고 생활은 분명해지고 잠자리는 편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이며 이전에는 제 장래가 불안하니 저에게 반항적이었던 제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잔소리도 하며 자주 꾸중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제 아이들의 장래가 잘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저도 관대해질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동시에 아이들도 순하고 착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앙적인 탐구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늘 ‘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 종교적 의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것을 알고자 노력하여 왔으므로 20대에 기독교에 입문하였고 결혼해서는 천주교인이 되었고 인생의 의문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무슨 책이든지 다 읽고자 성경과 기타 기독교 신앙 서적은 물론이고 신문 잡지에서 도움이 되는 글이나 불경들도 읽었는데 소위 세간의 영성 서적은

물론이고 철학과 사상에 관한 책도 꽤 읽었으며 무당별곡, 통일교의 원리강론, 증산도의 도전 등도 읽어보았으나 저에게 남거나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므로 40세가 넘어서자 알게 된 것이 이미 인간의 말은 들어볼 만큼 들어 보았으니 이제는 인간의 말은 더 이상들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깨달았다고 아는 체하는 자도 한 치 앞을 모르기는 저와 똑같음을 알면서부터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여러 가지 교리도 배워보았어도 ‘그렇다 하니 그런가 보다.’하는 정도였지 확신이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교회나 성당에서 성가대나 레지오 활동 등을 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어도 인생에 관한 문제의 해답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제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어려울 때에 예수님이나 마리아로부터 단 한마디의 도움의 말이나 격려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진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제 인생의 비밀을 풀었고 필요하다면 언제나 도움을 받고 있으니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연해졌습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분명해졌고 저의 모든 생활에 여호와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 두려울 것이 없어졌으므로 말 그대로 이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25일

전 한 수 (010-6283-0793)

내 삶을 늘 깨끗하고 선량하게 살려고 한다면

저는 아들딸 두 자매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활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던 가운데 아이들 엄마와 헤어지게 된 후로 저의 생활을 하루하루 더욱더 힘들어지고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도 해보고 공장에 취직도 해보고 노점장사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모든 것이 잘되지 않아서 실패로 돌아가는 생활이 계속 이어져 오더군요.

‘나는 왜 이리도 잘되지 않을까?’하는 원망과 미움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이 너무도 싫어서 극단적인 생각도 여러 번 해보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이 제 뜻대로 마음대로 고집대로 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지자 저 혼자‘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살아보아도 생활은 점점 더욱더 빈곤으로 추락하여‘노숙자 같은 생활이 머지않았구나?’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날마다 근심 걱정을 하며 지낼 때에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만 빌라마저도 경매가 임박하게 되었고 제 몸은 점점 쇠약해지

면서 병마까지 찾아오는 환란 속에 빠졌습니다.

자주 술을 마시다 보니 간에 무리가 왔고 혈압이 너무 높아서 날마다 뒷골이 땡겨서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연히 제 여동생 (지금도 저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바로 아래 여동생)이 저에게 자기가 예배드리는 곳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무심코 따라갔다가“십계명성회”를 알게 되었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결으로 인도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저에게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제 여동생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망막한 처지에 있던 저를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제가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이 새로운 희망과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였더니 그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믿음에 더욱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0여 년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면서 가능한 생업에 지장이 없는 한 예배참석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리신 법전을 공부하며 지내오면서 제가 세상일이나 건강문제 어려운 것이 있을 때에는 개인 기도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부터는 세월이 지날수록 캄캄하고 어두웠던 저의 가정의 떡구름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하고 밝은 빛이 서서히 들기 시작하여 모든 일이 풀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병마까지도 치료해 주셔서 믿음 생활에 더욱더 정진하며 실천하는 마음을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60대 중반으로 그동안 아들딸들은 다 장성하여 결혼해서 잘살고 있으며, 저는 제 형편에 맞는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하루하루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옵나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뻔한 제가 십계명성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극적으로 모든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해결되므로 어떻게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는지를 간단하게나마 그 문

제와 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성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있던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 이유는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6천 년 전의 구약 시절에서 처럼 성령으로 실재하시면서 말씀으로 하늘의 천기 하나하나를 선택된 한 사람을 통하여 십계명성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면 여러 사람 중에서 제 말을 곧이 들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또한, 제가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나 제가 병이 들거나 아플 때에도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십계명성회 성도는 누구나 한 달에 한 번씩은 개인 기도를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뵈고, 여쭙어 보고, 말씀을 대답을 듣고, 이를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이런 옛날 얘기에나 나올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과학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다는 오늘날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실재하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처지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언제라도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것이며, 개인기도 시 등에 여호와 하나

남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나 예를 들자면 현대의학으로 속수무책인 병이라도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실행만 한다면 가깝게는 일주일 내지 한 달여 정도를 계속해서 실천한다면 치료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신이 알 수가 있으며 즉시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성령에 의하여 치료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은 설명을 해 드려도 당장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아시고자 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책으로 만든 “은혜와 은총입니다” 법전을 공부하시면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말로는 무얼 못하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짜가 진짜를 이기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세상에서 가짜들은 온갖 거짓을 이용하여 모은 재물로 호화찬란하고 웅장하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여 더욱더 재물을 끌어모으고 그 재물로 더 즐겁고 편하게 쾌락을 추구하고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걱정을 하시어서, 우리가 모두 다 거짓이 없는 세상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면서 깨끗한 삶을 만백성이 살아가도록 한 후에 우리가 모두 천수를 다하고

저 세상 미래세계에 가서는 본고향 황금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십계명성회가 할 일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서 참 진리를 찾고자 하시는 선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을 모두 다 알 수 없는 인생에 관한 문제, 병마에 시달리는 사연, 전생과 이생의 연결고리 등과 무엇을 어떻게? 왜?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십계명성회에서 마음공부하고 있는“은혜와 은총입니다”법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이 아름답고 착하신 분들이 앞장을 스셔서 거짓되고 사악한 모든 세력을 정화하면서 선량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생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은 살다가 그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하는“천년구원사업”과“천년계획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2012년 3월 8일

우 대 식 (010-2228-6528)

우리 모두 치유의 은사를 받을 그날을 고대하며

이 세상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살아온 길을 뒤돌아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어려서는 고아처럼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제대로 사랑을 모르고 세상의 파도에 시달렸으며, 20대 때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며 술 담배와 방탕한 환락의 분위기 속에서 많은 죄를 지었고, 30대 때에는 어렵게 장만했던 집을 팔아서 농장을 하다가 다 털어먹고 알거지가 되어서 이를 만회하려고 지방도시를 유랑하면서 불량상품을 팔기까지 하고 나서 40세 정도가 되어서야 불현듯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남은 것은 허탈감뿐이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서울에서 제대로 살아보자고 결심을 하고는 큰 교회에서 10년 가까이 헌신 봉사하면서 ‘예수님

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동서남북으로 문을 두드려 보았으나 응답은커녕 작은 바람 소리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말을 잘한다는 그 많은 종교지도자 중에서 딱 한 사람만이“십계명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말을 들었으나, 그때에는 저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구약시대의 율법인 십계명을 신약시대에 그걸 다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반문하며 고개를 흔들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부끄럽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이런 제가 십계명성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저는 십계명성회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십계명성회의 토대를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보탬 수 있었던 것을 일생의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광을 저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무한한 경배를 드립니다.

제가 십계명성회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기적 같은 무수한 사연과 은혜와 은총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필설로는 제대로 다 표현할 길이 없으며, 만일 한마디로 하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옵나이다.”라는 말밖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으나 그래도 부족

한 제 소견으로 체험한 것과 마음공부 한 것을 간략하게 적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인생을 잘살아보기 위하여 종교에 눈을 뜨고 서울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에서 열성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해보기도 했으나, 어느 교회를 불문하고 또는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 단체도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하는 일들이 세속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는 것과 실제로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회의에 빠져 있을 때

우연히 기적처럼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무엇이 참 진리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전의 제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이 왜,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제 삶이 서서히 어둠에서 벗어나서 밝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가 참 진리를 알게 되고 제 삶이 밝은 삶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십계명성회”라는 곳을 세속의 눈으로 본다면 작고 볼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본체를 내리셔서 계시는 곳으로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구약시대의“성소”와 똑같은 곳입니다.

그럼으로, 우리 십계명성회 성도들은 마치 우리가 집안에서 모르는 것이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여쭙어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과 똑같이 십계명성회에 성령으로 좌정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알고 싶은 문제, 어려운 일이라 해결책을 모르는 문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병 치료 문제(병원에서도 두 손을 들어서 포기한 경우도 물론 포함), 인생의 방향 결정 문제 등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심지어는 윤회와 전생에 관한 문제까지도 여쭙어보고, 내려주시는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만 하면 그것들이 해결되는 이러한 일이 창조주가 아니시면 누가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십계명성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공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총을 보면 늦은 나이에 저의 예기치 않은 결혼, 자식의 대학 진학 및 취업, 집의 구매, 탈모 및 시력저하 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부딪히는 ‘질병치료 문제를 십계명성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가?’하

는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건강하여야 예배도 잘 드릴 것이며 공부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요건이므로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면 어떤 병도 걸리지 않지만 이미 걸려 있는 병이나 부주의 탓에 병이 들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자연 약제나 자연음식을 이용하는 처방을 주시는데 설혹 그 병이 암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큰 병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처방에 따라서 섭생 정도만 잘하는 정도의 노력만 하면 치료가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십계명성회인 것입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자면 몇 년 전에 탈모가 진행되어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어 보았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오늘부터 매일 오곡밥을 6개월을 먹도록 하라.”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이대로 실행하였더니 탈모가 완치되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탈모증세가

있는 다른 사람이 제 얘기를 듣고 그대로 실행하면 그 탈모가 치료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저와 같은 증세로 저와 똑같은 처방을 그대로 따라서 했을 경우에는 그 처방의 약제나 음식 성분의 도움으로 약간은 좋아질 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저와 같이 완치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깃들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처방을 내리시면 그 처방은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처방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이 그대로 따라서 한다.’ 하여도 그 효과를 다는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기를 말씀으로 내리신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책자인 “은혜와 은총입니다”라는 제목의 법전에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은혜와 은총입니다” 법전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찬식 예배를 통하여 치유의 은사를 내리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병이 성령으로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낫는 이유와 방법도 알려 주시면서 앞으로 지구의 모든 사람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십계명성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를“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무엇을 못하실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구하시고, 지구에 살고 있는 만백성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지구의 대한민국의 서울의 보문동에 성령으로 본체를 내리시고 천년구원사업과 천년계획사업을 시작하시어서 지금도 하루하루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천기를 말씀으로 내리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서없이 한 이야기를 사실로 끝이끝대로 들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과학상식으로 보아서는 납득이 되지 않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눈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와 연관되어 있어서 영적인 감수성이 적은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경험해보거나 체험해보면 금방 확인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영리하다고 하는

인간들이“하늘에서 누가 재림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수천 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몇 십 년 동안의 자기 수명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성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스스로 며칠 몇 주 만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모두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마음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심성이 곱고 착한 자들이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십계명성회에서 치료한 다음에 그 고운 심성을 갖고 닦아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천년구원사업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는 맑은 영혼을 소유한 분들에게“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나라에 본체를 내리시어 제3의 시대를 여시고 천년구원사업과 천년계획사업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하시고 계십니다.”하는 이 기쁜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3월 12일

이진우 (010-3244-0037)

내 인생 전부를 바치며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주와 지구를 만들어 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신중의 1등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동물이나 미물이 아닌 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반세기를 살아오면서 이생에서 지은 죄가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전생에 지은 죄 또한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그랗고 빨간 양파가 한 꺼풀 두 꺼풀 벗겨지면서 물이 생기고 하얀 속살이 드러나듯이 저 자신 삶의 역경과 고통을 겪으면서 나의 모가 난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서 이리저리 마음대로 구를 수 있는 저를 만들어 가려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신 저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남평야의 황금 들녘 삼례읍 어전리 아주 작은 마을 오두막집 단칸방에서 오빠 한 분을 위로하고 아래로 여동생 셋과 남동생 둘을 둔 장녀로 1954년에 태어나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보릿고개란 배고픈 시대를

어린 나이에 겪으면서 쌀밥 한 그릇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어질고 착하시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평을 받던 저의 아버님은 어려움에 고생하는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동네의 애경사만 신경 쓰시는 한량이셨고 가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란 작은 텃밭 하나 가꾸는 것이 전부였고 반면에 어머님께서서는 출산하시고 100일 만에 그 무거운 쌀이나 생선, 고추 등을 머리에 이고 고개도 못 가누는 동생을 등에 업고 십 리가 넘는 먼 길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어렸지만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철이 빨리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맏딸이란 책임감도 작용했지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38년 전, 1974년도에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영혼이 궁금하던 찰나에 직장에서 아는 동생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대한예수성결교회에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일부 궁금했던 문제가 풀렸고 그 은혜가 고맙고 너무 커서 이를 보답하며 사는 마음으로 신학대학에 들어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영혼은 갈급했고 답답하고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이 얽히고설키고 힘이 들었습니다. 유난히도 산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를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뿐이었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모순들이 너무 많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서 고민하던 중에 직장에서 일하던 중인 2000년 9~10월경 우연히 하얀 표지의 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는 순간에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말씀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으며 내 손에서 일주일간 시간 나는 대로 밤낮으로 읽었습니다. 이제는 2천 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시대는 끝나고 제3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년구원사업을 직접 관장하시고 계심을 알고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에 법전을 읽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십계명성회로 옮기게 된 후에 지금의 나의 삶은 영혼이 갈급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답답했던 하수구가 뚫리는 것처럼 복잡했던 내 삶이 후련하게 평 뚫린 것처럼

해소되었습니다.

기존 종교의 모든 기도가“달라. 달라.”기도를 하지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른 자세로 마음을 비우고 정직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고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있는 죄 없는 죄 하나하나 찾아서“여호와 하나님 저의 죄 용서하옵소서!”하며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는 일밖에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므로

십계명을 외우면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나의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따뜻한 햇볕을 밤에는 환한 달빛을 주시고 1분 1초라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공기와 산소를 주시고, 물과 불을 아무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그냥 주셨습니다. 지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이 모든 것들을 값으로 계산해서 그 값을 치르라.”하신다고 하면 70억의 인구 중에서 과연 값을 치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은총에 대하여 보답하기는커녕 자연을 파괴,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각종 쓰레기와 오물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쥐구멍에 들어가서라도 속죄를 해야 할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마음속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기에 잘못에 대하여 하루하루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33년 전에 류머티스성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심하지 않아서 1980년에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아서 잘 키웠습니다. 결혼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친정에서 300만 원을 빌려서 석유가게를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두 번이나 사기를 당하고는 더 어려워져서 여섯 살 된 큰아들, 세 살 된 작은아들을 보살필 겨를도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중노동인 택시 세차를 하루 2교대로 하느라 뜨거운 여름에 더위를 먹고 추운 겨울에는 뽕뽕 언 얼음 속에서 죽을 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돈도 많이 벌어서 남편 사업도 도왔고 빚도 갚고 아파트도 한 채 장만했습니다. 그 어려운 생활 속에

서도 두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습니다.

제가 힘든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 몸이 약해지고 기력이 쇠잔하여 면역력이 떨어지고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목 디스크가 생기고 손가락 발가락 마디가 변형이 시작되고 팔꿈치, 발목이 너무 아프고 쭈셔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이며 말로 표현하자면 바늘로 찌는 듯한 아픔, 칼로 난도질하는 듯한 아픔, 이런 아픔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체중이 43kg밖에 안 되어서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걷기가 무서워서 밖에 나갈 일이 있어도 겁이 나고 열 발자국만 걸어도 아파서 쉬었다가 울면서 걷고 계단은 바로 내려가지 못하고 난간을 잡고 뒷걸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독한 관절염 약을 20년간 복용했지만 복용할 때 그때뿐이고 병의 차도는 없었습니다. 손가락의 뼈마디가 끊어지고 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정말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던 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처방을 내려 주시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한 결과 20년간 복용

했던 독한 관절염 약을 다 끊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이후 10년 넘게 건강을 되찾아서 몸은 43kg에서 51kg으로 거의 정상적인 체중으로 늘었고 그 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및 금요일 저녁 예배,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 헌신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가기가 무척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소견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반성 회개하고 거짓 없이 진실, 정직, 깨끗한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참믿음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가 불쌍하다고 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에 비하면 하루살이보다 우리 인간이 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죽음의 생명줄이 하루하루 감겨가고 있는데도 예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생명줄이 다 감기고 나면 준비 못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감히 어찌 제가 하루살이보고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서 인간특권이 있을 때 제 영혼은 본인인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제 인생 삶의 전부를 바쳐서 미래 사후세계의 영생을 위한 길을 가고자 영원불멸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더욱더 충실히 해서 제 영혼을 보살피면서 예전의 저와 같이 영혼이 메마르고 갈급한 사람에게 제가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소망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앞만 보고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어느 시인의 시 한 소절이 생각나서 적어보려 합니다.

성 소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들이 몰려오는
해안선의 펄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맹그로브
진흙투성이에 맨몸을 담그고
세상의 쓴맛 단맛 다 보며
그 속에서 저 혼자 깨우치는 나무

진흙 속이 천국이라 믿고
진흙 속에 팔을 벌려 죄 안다 보니
어느새 푸른 바다가 그의 몸이 되고
그의 몸은 진흙을 걸러내는
맑은 성소가 된.

2012년 2월 13일

우 순 애 (010-9097-8109)

행복한 삶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

2004년 어느 날, 비중격만곡증으로 코가 심하게 막혀서 수술을 받으려고 종합병원에 갔다가 코 부위 수술을 위한 심장검사 결과“상심실성 부정맥”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 3년간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서 결국 심장수술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심장수술을 기다리고 있던 수술예정일 1주일 전 쯤의 어느 날, 4촌 형님이신 성도회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그 수술을 받으면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물으셔서 나는“95% 정도 된다고 합니다.”라고 답변하였더니 “그러면 네가 5%의 실패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할 수 없는 일이지요.”라고 했더니“수술을 받는 것도 좋으나 그러지 말고 십계명성회를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한번 나와 보아라. 그런 다음 수술을 받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권유로 54살이 되던 2007년 1월에 처음으로 십계명성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어색하였으나 세 번의 예배를 마친 일요일, 저는 기도자 선생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의 말씀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아도 일단 성공은 하나 2년을 넘기면 또 부작용이 생겨서 너의 생명이 60을 넘기기 어려우니 지금은 절대 수술 받지 말라. 수술할 시기가 되면 너에게 알려줄 것이니라. 너의 생명을 내가 지켜 줄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왜 그렇게 서러운지 나도 모르게 펄펄 울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무엇이 잘못 되어 60에 생을 마감한단 말인가?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마시지 않게 되고 육식을 줄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도 말씀에 따라서 채식 위주의 자연치유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기도말씀을 받은 지 7년 뒤 간단한 심장시술을 하였고 그 결과 심장병도 완치되었고 호흡기질환도 없어졌으며 지금은 북한산 백운대도 쉬지 않고 거뜬히 올라가고 7시간을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중시하는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었음을 불만하던 사고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쟁하고 쟁취하려던 마음에서 양보하는 마음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또한 십계명을 생활화하고 「은혜와 은총입니다」 법전 공부를 통하여 참다운 삶을 깨우쳐 가면서 이승에서의 짧은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윤회하는 나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깨달음이 많이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진정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작으마한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든든한 것은 가슴 답답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 바른길로 가도록 알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나의 곁에 계신다는 것으로 영광중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삶이 고달프고 영혼이 곤궁한 이들을 위한 법전 「은혜와 은총입니다」를 편찬하여 보급하고 전도하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은혜와 은총입니다.

2014년 8월 11일

이 준 규 (010-6317-0886)

내가 체험한 삶의 기적

저는 지난날을 더듬어 긴 편지를 씁니다.

지금 이 2015년이니 2005년부터 나의 새로운 신앙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일을 회고하자니 감사와 회개와 감격으로 가슴이 찡해집니다. 언제 이렇게 조용히 지난날을 회고해 본 적이 없었지요.

2005년 8월에 제가 근무했던 회사의 회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고 심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며칠 후 회장님이 전화를 통하여 지난 1년간 서울의 모처에 다니면서 회장님 내외가 지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되찾았다는 경험담을 들려주시고 저에게 그곳에 가서 건강을 되찾으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십계명성회 성전입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은 3~4개월 전부터 왼쪽 등과 옆구리 쪽이 결려서 그 쪽으로 눕지도 못하던 터에 항상 신뢰하는 분의 말씀이라 가보라고 약속한 9월 7일에 보문동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을 만나 기도를 받았지요. 구구절절한 기도 말씀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시고 “가슴에 쌓인 한을 왜 가지고 있느냐. 그로 인해 병이 몸에 가득하니 한을 풀어야 네가 산다. 가슴속 한이 목까지 차올랐구나.”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한없이 납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가슴의 한을 풀라 하시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니 그때를 돌이켜보면 은혜와 은총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동의를 얻고 다시 한 번 가보자고 하여 다음 일요일에 재차 방문하여 남편이 기도를 받았는데 남편의 지나온 일들을 말씀해주시고 잘못된 일들을 꾸짖었습니다. 기도말씀을 받은 후 냉담 중이던 천주교를 뒤로하고 곧 바로 함께 성전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 달포 후의 일요일 기도 말씀 중에 갑자기 하늘의 의사천사에 의해 검은 점을 제거하는 수술(암 수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후 처방이 내리셨는데 그 말씀대로 약재를 구해서 달인 물을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아하

기도 하고 신기한 마음으로 두 달여 동안 약을 복용한 후 어느 날부터 발뒤꿈치가 찢어지고 피고름이 흘러나와 깜짝 놀라 기도를 받았더니 지난번 수술 후의 몸속의 찌꺼기를 뽑아내는 중이라고 하시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에 신기하고 놀라움을 금할 길 없으며 크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 후 평생 먹을 약을 처방 받아 먹으면서 팔 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 외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 받아 치유된 사례는 너무 많았고 남편도 많은 치유를 받았으며 더불어 자녀들도 많은 치유를 받았으며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많은 치유 사례를 낱낱이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은혜와 은총입니다.

2015년 1월 21일

김 경 초 (010-9676-5799)

밝은 마음

초판발행 : 2012년 3월 26일

재판발행 : 2013년 3월 26일

3판발행 : 2015년 2월 11일

말 씬 : 여호와 하나님

발행인 : 십계명성회

발행처 : 도서출판 천명

연락처 : 02) 922-3811

: 02) 922-0525

정가 : 비매품
